

그땐 그랬지...

송중계소 산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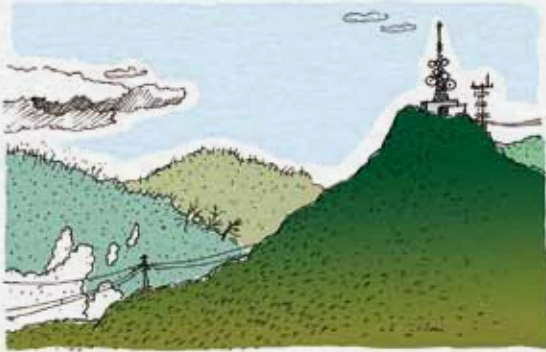
송중계소 저 아래 산중턱에서 의심스런
연기가 모락모락
벌일 아니겠지 하며 옥상에서 지켜보자니
골짜기 골바람을 타고 산등성이 쪽으로
벌건 불길이 번지고 있다.



한겨울내 메마른 대지는 단비를 기다리건만
봄바람에 들뜬 나들이 등산객의 발길이
부쩍 늘은 따스한 봄날



소방차 사이렌 소리에 소방관은 물론
구청 공무원들도 투입되어 진화작업을
실시하건만 불길은 점점 거세지고
송중계소까지 연결된 특고압 선로가
산불에 노출되어 전소됐다.
산림청헬기 덕분에 산불은 진화됐지만
전력이 끊겼다. 비상상황이다.



새벽에 방송이 끝나면 송신기를 오프시키고 최대한 전력소모량을 줄이면
현재 보유한 발전기 기름으로 4일은 송출할 수 있다.
4일 안에 전소된 특고압선로 500m를 복구하기는 불가능하다.



결국, 운송헬기를 긴급섭외하여 4일째 되는날 발전기 기름부터 확보하였고 전소된 특고압선로를 철거
하고 새 케이블을 포설하여 1주일만에 한전 선로를 복구했다. 송중계소에서 교대로 쪽잠을 자며 방송
송출 중단없이 무사히 비상상황을 종로했다.



경찰조사 결과 골짜기에서 삼겹살을 구워먹던 등산객의 실수로 산불이 발생했다고 한다.
그 후 1년이 지나 산불감시 CCTV가 설치되고 봉철 산불감시 어르신들이 산을 지키신다.